

오늘은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 본보가 전한 국제결혼의 그들과 해법

싱글맘 녹년의 쌀국수 가게에 '희망'이 우리납니다

다문화 싱글맘 재기 돕는
퓨전식당 '오요리'

'150cm 남짓한 작은 키, 짧은 파마머리...'
베트남에서 11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보타 녹년(37)은 영락없는 한국 아줌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지난 주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베트남 음식점 '아시아보물'에서 만난 그는 2명 남짓한 주방에서 12시간째 고기국물을 우려내고 있었다. 허름한 상가 2층에 자리 잡은 이 가게가 그녀의 유일한 수입 창구다.

그녀에게 '다문화 싱글맘'이라는 슬픈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한국 사회는 20년 전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렸다. 농총각들의 배필이 된 건 녹년처럼 가난한 국가에서 온 처녀들이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파경을 맞고 다시 가난의 늪에 빠졌다.

연고도 없는 땅에서 경제적 고립에 빠진 다문화 싱글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사회적 약자다. 동아일보는 전 세계 50여 개 언론사가 한날 동시 각국의 사회문제와 해결책을 보도하는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Impact Journalism Day)를 맞아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오요리아시아'와 오요리의 도움을 받아 자립 희망을 불태우는 다문화 싱글맘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빛이 끊겨버린 삶

"시집가기 싫어, 절대로 안 가."
26세가 될 때까지 녹년은 결혼 생각이 없었다. 꿈이 있다면 동네에서 식당을 차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뿐. 손이 아주자기도 유명했던 그는 식당에서 일하며 가장 노릇을 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한국 가면 잘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할머니 손에 불려져 2006년 베트남을 떠나야 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시부모가 두려운 곳은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도망갈 수도 없이 고립된 이곳에서 녹년은 난생처음 우울증에 빠졌다. 그리고 이듬해 전주곡이 시작됐다.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퇴근 후부터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붙어 사는 게임광이었고, 설상가상 사재기까지 끝까지 쓰대 속을 썩였다. 결국 그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4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다. 두 살배기 어린 아들을 안고 홀로 서야 하는 싱글맘 처지가 된 것이다.

경기 안산의 공장지대를 전전하던 그녀는 2012년 권오의 수녀(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대표)의 소개로 사회적 기업 오요리를 만났다. 8주 단 인턴십, 이후 4년간 식당 종업원 생활을 하며 수석 셰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서툰 한국말 탓에 조리사 시험을 19번이나 탈락했지만 결국 2012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점점 열린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이다.



서울 동작구 베트남 음식점 '아시아보물'의 창업자 보타녹년 씨(37·왼쪽)가 종업원 방티민 씨(26)에게 갖춰야 할 쌀국수를 건네고 있다. 녹년 씨는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싱글맘이 된 뒤 사회적 기업 오요리아시아의 도움을 자립 훈련을 받고 지난해 가게를 열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꿈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4년만에 파경, 위자료 한푼 못받아
공장 전전하며 아들과 힘든 나날

퓨전식당 '오요리'와의 만남

인턴십 과정 거치며 창업 꿈
후원금 등 주위 도움으로 작년 오픈

오요리, 네팔까지 건너가다

카드만두에 카페 열고 직업 훈련
이제해 대표 "현지서 자립한다면
굳이 한국으로 올 이유 없잖아요"



이제해 '오요리' 대표

● 요리로 꿈꾸다

녹년의 자립을 도운 오요리의 역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자 이지해 씨(42)는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하다가 마케팅 담당자였다. 하지만 여성을 상품화한 선정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업계 생태계에 환멸을 느꼈다.

"언제까지 여성을 상품처럼 파는 곳에서 일해야 하나?"
그때 눈에 띄게 다문화 싱글맘이었다. 여성, 외국인, 이혼녀...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약자 수석'이 될 2중, 3중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녀들의 자립을 돕고 싶었다. 이 대표는 "음식 만들거 없이 자신 없었지만, 취와 계층에게 문턱이 낮은 '푸드 비즈니스'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오요리를 설립한 그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아시아인 퓨전 식당을 차렸다. 셰프를 고용해 음식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이주여성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북촌에서 스페인 요리 레스토랑 '페노노'를 운영하며 이윤의 일부로 다문화 싱글맘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8주 동안 조리, 서빙, 매장 관리법을 전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중간 이탈자도 많았지만 녹년처럼 의욕같이 매달린 이들

도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홀로 자식을 먹여 살릴 만큼 자립하는 것이다.

"이제 창업할 때 되지 않았어요?"
지나해 이 대표는 녹년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동안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막상 도전하러니 두려움이 앞섰다. 빈곤층에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공모에도 떨어졌다. 희망이 깨질 때쯤 후원금이 들어왔다. 마음 같아선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에 가게를 열고 싶었지만, 권리금만 1억 원이 넘었다. 결국 장승배기역 인근 낡은 건물 2층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를 차렸다.

녹년의 가게엔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이 있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싱글맘 방티민(26)이다. 딸은 19세에 한국에 시집 왔다가 3살이된 딸을 안고 이혼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OO(아이 이름) 엄'이라고 부른다. 하루에 쌀국수 80그릇을 팔아야 하는 장사지만, 이제 6개월 된 이 가게엔 하루에 50명 정도가 찾아온다. 부족분은 인턴비를 줄여 가며 버티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 현지에서 행복을 찾다
네पाल의 수도 카트만두에 자리잡은 카페 미티

니(Cafe Mitini), 현지 여성들이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이곳은 오요리가 네팔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해외에 세운 또 다른 꿈의 공간이다. 한국 내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돕던 오요리는 왜 네팔까지 건너갔을까.

"현지에서 자립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공모에도 떨어졌다. 희망이 깨질 때쯤 후원금이 들어왔다. 마음 같아선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에 가게를 열고 싶었지만, 권리금만 1억 원이 넘었다. 결국 장승배기역 인근 낡은 건물 2층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를 차렸다."

이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제결혼과 이혼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가난과 연결돼 있다고 믿는다. 근본적으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현지 여성들을 육성하고 있는 '빈곤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내팔 빈곤층 여성들에게 생존 기술을 알려주는 도구다. 오요리는 인턴십을 거친 네팔 여성들이 창업할 때 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돕는다. 그 노력의 결실은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4년간 카페 미티에서 일했던 다과 다부티 세프파가 창업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7월이면 카트만두 현지에선 그녀의 딸이 서신 '카페 미티니 2호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행동하는 여성들' IJD 해외사례

염산테러 당한 인도여성 '세상 밖으로'
"공격한 사람이 얼굴 숨겨야지, 내가 왜..."

인도의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성(성)격차 지수 순위는 전체 144개국 중 87위로 우리나라(116위)보다 오히려 높다. 하지만 범주를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으로 좁히면 인도는 142위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임금 격차 등을 제외한 순전한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인도는 여성들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인도 아그라의 루키아아 씨(30)는 그 현실을 잘 안다. 14세 때 결혼 제의를 거부했다가 친척들에게 '염산테러'를 당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여전히 집을 나설 때면 베일을 쓴다. 같은 지역의 루파 씨(24)도 15세의 나이에 계모와 한 무리의 남성들에 의해 염산테러 공격을 받았다. 한동안은 충격에 말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둘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는다. 인도 일간 '더헌두'는 최근 이들이 염산테러 생존자 지원단체 'Stop Acid Attacks'가 운영하는 이 곳에서의 카메라에 실리는 모습은 자랑했다. 루파 씨는 이 신문의 인터뷰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든 상관 안 한다.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얼굴을 숨겨야지 (피해자인) 내가 왜 그해야 하

는가"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아그라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의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곳에서 일하는 염산테러 피해 여성들은 단순히 재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 뿌리박힌 왜곡된 성의식을 규탄하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카페 매뉴얼에 가격이 무너진 후 적혀 있지 않은 점도 특이하다. 이들의 목소리에 동요하는 만큼 자유롭게 지갑을 열면 된다.

한때 부르크(전신을 가리는 복장)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 시절 금기였던 음악을 이용해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적 문화를 도전하고 있다. 아프간 일간 '하슈태예스부흐'는 아프간 국립음악원(ANIM)에 재학 중인 학생생 75명이 결성한 오케스트라에 주목했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후인 2010년 설립된 음악원(현재 250명)은 초거대 학생이 5명밖에 없었지만 이제 학생들만의 오케스트라를 차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공연할 정도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미래의 상징'으로 통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카페 운영 교육을 받고 자립에 성공한 염산테러 피해 여성들이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여성에 대한 염산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헌두 제공

본보, 한국 언론 대표해 작년 이어 올해도 참여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 프로젝트는 세계 언론계의 새로운 흐름인 '솔루션 저널리즘'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다. 언론이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존의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구체적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는다. 프랑스 파리의 스파르투스가 2013년 주창해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50여 개 언론사들이 참여했다. 미국의 USA포럼이 이번의 아시아시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스 타임스 등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처음 참여해 올해도 2번째 한국 언론을 대표했다.

참여 언론사들 각자 자기 나라의 문제 해결 사례를 기사로 준비해 공유한 뒤 이를 같은 날 소개한다. 올해는 6월 24일이 바로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다. 언론사들은 사흘 동안 IJD 본부와 협의해 기사의 주제를 결정해 준비했다. 올해 IJD 속에서 금감했던 한국 관련 이슈는 스타트업과 스텝업이 여성 지원이었다. 본보는 결혼이주여성 자립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꼽고 해결책을 소개하기로 했다. 저개발과 여성 빈곤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세계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보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이 된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오요리아시아'의 사례를 기사화했다. 이 기사는 50여 개 참여 언론사들이 발행하는 24일자 'IJD 북클럽'에 실렸다. 인도 유력매체 '더헌두'의 아나타크리슈나 수석부국장 등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소외된 여성들이 참여했다. 미국의 USA포럼이 이번의 아시아시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스 타임스 등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처음 참여해 올해도 2번째 한국 언론을 대표했다.

국제부 기자로서 24시간 외신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를 검색하고, 기사를 만들어 독자에게 전하다 보면 '세계가 당연한 당연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올해는 6월 24일이 바로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다. 언론사들은 사흘 동안 IJD 본부와 협의해 기사의 주제를 결정해 준비했다. 올해 IJD 속에서 금감했던 한국 관련 이슈는 스타트업과 스텝업이 여성 지원이었다. 본보는 결혼이주여성 자립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꼽고 해결책을 소개하기로 했다. 저개발과 여성 빈곤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세계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김수연 기자 suyeon@donga.com

오늘은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 세계언론이 전한 기발한 아이디어

아픈 아이 대신 학교 가는 로봇... 폐의류 에탄올로 달리는 車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는 유수프 외삼(13)은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얼굴 등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그는 감염에 취약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 안에만 있던 그가 요즘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요즘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그를 대신해 학교에 가는 로봇 '빔(Beam)' 덕분이다.

올해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Impact Journalism Day)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 소개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앞서가는 과학기술부터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발상의 전환 사례까지 다양했다.

덴마크 일간지 플라티켄은 외삼의 학습도우미 로봇 빔을 조영했다. 로봇은 머리 부분에 있는 모니터와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 바퀴 3개가 전부일 정도로 다소 엉성한 모습이다. 그러나 외삼에게는 볼도 없는 친구다. 이 로봇을 통해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삼은 집 컴퓨터를 통해 로봇 빔이 보내주는 영상과 음성으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에 외삼의 영어 발음을 선생님이 듣고 교정해 주기도 한다. 수업 참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우스 조작으로 빔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휴식시간엔 운동장으로 빔을 보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비록 학교엔 가지 못하지만 로봇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로봇 빔은 2년 전 교사 프란시스 니르코르 씨와 정보기술(IT) 개발자 모르텐 아랍센 씨의 노력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외삼과 같이 질병이나 학교 부작용 등으로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임무다. 개발비용은 현재 최고 4700유로(약 600만 원)가량인 로봇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 또 무선인터넷 이동 기술을 발전시켜 빔이 학교를 벗어나는 연구도 진행



세계 도처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인지 메이커'들의 활약이 눈부신다. 덴마크 일간지 플라티켄은 외삼이 힘든 환우들을 대신해 학교생활을 돕는 학습도우미 로봇 '빔'을 조영했다(왼쪽 사진), 일본 아사히신문은 쓰레기를 재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쓰는 차 '들로리언'을 소개했다. 사진 출처 플라티켄-아사히신문

덴마크의 학습도우미 로봇 '빔'
로봇이 보내준 교실 영상-음성
집 컴퓨터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일본의 재활용 연료 차 '들로리언'
"버려지는 의류에서 연료 얻자"
영화 '백 투더 퓨처'에서 힌트 얻어

방글라데시의 '페트병 에어컨'
자른 페트병 수십개 판에 꽂으면 '쿨'
기압차 이용해 온도 5도 낮춰

중이다. 이렇게 되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따라갈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얘기를 소개했다. 의류무역 회사를 다니던 이와모토 미치히코 씨는 플라스틱이나 캔과 달리 상당수의 의류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10년 전 '일본환경계획'이란 자원봉사회사를 직접 차린 그는 폐기되는 면 소재 옷을 재활용해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바꾸고, 플라에스테르를 재활용해 우산 등 생활용품 만들 어냈다. 하지만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적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1985년 개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였다. 시리즈 1편 말미에 예티 브라 온 박사가 미래에서 타고 온 스포츠카 '들로리언'이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한 연료로 하늘을 나는 놀라운 장면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이와모토 씨는 도쿄대 출신의 공학자 마사키 다카오 씨와 의기투합했다. 시행착오 끝에 면을 재활용한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들로리언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 날짜는 영화 속 1985년에 살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날아간 미래인 2015년 10월 21일에 맞췄다.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 연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모토 씨는 사업 초기만 해도 아웃렛에 폐의류 수거함을 하나도 놓지 못해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70곳과 계약을 맺고 폐의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꼭 첨단 기술이 도입돼야만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의 일간 '더 데일리 스타'는 간단한 과학 지식으로 만든, 전기가 필요 없는 친환경 에어컨 '에코쿨러(Eco-Cooler)'를 소개했다. 방글라데시는 여름이면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며 폭풍 저지판, 도시를 제외하고는 에어컨

을 구경하기 어렵다. 방글라데시 광고대행사 그레이 다카는 지난 해부터 '값싼 에어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일단 제작부터가 간편하다. 가운뎃층 자른 페트병의 상단 부분 수십 개를 납작한 판 위에 꽂아 넣으면 완성된다.

이 판은 창문 등을 대체해 설치되는데 페트병의 입구 쪽이 집안으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더운 공기가 흡수되는 통로를 거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원한 바람으로 변한다. 입을 동그랗게 해 바람을 불면 차가운 바람이 나와 뜨거운 음식을 식혀먹는 것과 같은 원리다. 좁은 곳을 통과하는 공기가 기압 차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코쿨러를 설치한 가정의 실내는 설치 전보다 5도가량 낮아져 성능도 입증했다. 이 친환경 에어컨은 일소문을 타고 1년 만에 2만5000가구에 보급되며 사랑을 받고 있다.

황인민 기자 hic@donga.com

We are living a story of change

Around the world, there is a movement of ordinary people making a difference every day.

An illiterate Burkinabe farmer who managed to stop desertification thanks to a traditional farming technique. A German doctor who turned a disability into a talent, training blind women to detect breast cancer earlier than any gynecologist can. A 26-year-old Indonesian medical student who tackles poverty and waste by offering the poorest to trade trash for healthcare.

Solutions exist everywhere to create a world where sustainability and profits are compatible, inclusive democracy is restored, citize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access to education, healthcare and appropriate food, men and women have the same rights, and climate change is controlled.

If you believe that people don't need to wait on others to create positive change and that change can be achieved by anyone.

If you believe that building this world starts by changing the way we talk about it, restoring confidence and inspiring everyone.

Then join a growing movement of hope and change:
Sign this manifesto on sharestoriesofchange.org and commit yourself to spreading these stories of solutions, help them cross borders and have a greater impact.

Join the movement

Have an impact. Share solutions.
www.sparknews.com

IMPACT Journalism Day by Sparknews

Today, 50 of the biggest newspapers in the world will publish in 40 countries, 60 positive initiatives that respond to pressing global issues.

#StoryOfChange
#ImpactJournalism

Discover all these inspiring stories on impactjournalismday.com

SUPPORTED BY

IN PARTNERSHIP WITH

스파크뉴스 창립자 크리스티안 두부아르동.
스파크뉴스 제공

'IJD 프로젝트' 창립자 인사말

"세상을 바꿔나갈 혁신적 아이디어 널리 퍼져나가길"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는 시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과 해결책을 담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인류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변화의 추격자들 이야기다.

세계는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그 움직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스파크뉴스는 5년간 세계 유수의 언론사를 초청해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JD·Impact Journalism Day)를 실시했다. 매년 참여 언론사들은 지축을 흔들 만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고 이를 동시다발적(올해는 6월 24일)으로 전달했다. 지금까지 IJD 프로젝트의 기사를 읽은 독자는 총 1억2000만 명에 이른다.

올해 5회째를 맞은 IJD에는 다양한 언론사가 참여했다. 또 각계각층의 조직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문(sharestoriesofchange.org)에 서명함으로써 프로젝트에 힘을 실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사를 재미있게 읽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변화에 동참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크리스티안 두부아르동